

2010년 3월 26일 인간의 한계와 폐단에 대하여(091218)-정하빛

중앙 치어

2009.12.18 새벽기도중에 사람의 한계와 폐단, 그리고 무지로 지은 죄가 떠오르며 예수님께 죄송했습니다.
주님의 그 심정을 알아드리며 인간의 한계와 폐단에 대해 기도하니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자들이다. 정의하게 되는 구나. 말썽씨만 뛰어난 자라 할 수 있구나. 정말 기대하며 계획하여 만든 인간, 사람들. 그러나 치밀한 계획속에 만든 너희들 아버지와 어머니, 내 계획과는 너무 다르게 살고 있는 너희들의 이 현실이 가슴 아프구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가 너희 인간들을 만들었기에 너희는 진정 그 주인인 우리에게 고하여야 너희의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너희의 노력과 수고로는 늘 한계가 있다. 다들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무슨 일을 하면 딱딱한 막처럼 막히는 느낌.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 이 한계를 너희 스스로가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니 안되는 것이다. 왜 그것들을 너희가 해결하려 하느냐.

너희는 너희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진정한 주인인 아버지께 구하여야한다. 물어보면 속 시원히 대답해 줄 것을 왜 그리 심히 고민하고 있느냐. 아버지가 창조주임을 진정 느껴라. 인정하여라. 그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폐단이란, 지금 이순간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진정 너희의 가장 큰 폐단이구나. 욕을 가진 사람이라 보이는 것 중시하고 보이는대로 생각하는 것이 너희 사람의 폐단이다. 단 한명도 폐단을 가지지 않은자 없다. 사람이기에... 인간의 폐단, 진정 너희가 욕이기에 만든자를 통해 살아야만 그 폐단을 깰 수 있는 것이다. 실수해놓고 또 실수하고 화나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선 진정 나를 만나야할 것이며 나와 일체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떠나기전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나를 만나고 옆사람 이제는 의식하지 말고 내말을 진정 생명시하여 지키자. 곧 있으면 환란이 오는데 너희가 변화되지 않은 지금 상태로 2010년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 되노라. 내 사랑하는 애인들 남겨놓고 떠나는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프구나. 하지만 난 더 해줄 수 없을 만큼 다 퍼부어 줬으므로 미련 없이 가노라. 욕으로 보는 눈, 아직 세상을 보는 눈, 형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단하는 눈. 그 눈들을 다 깨끗이 씻어 버리자. 나는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였건만 너무 더러워져 버린 너희가 안타깝구나. 회개하여 깨끗해지자. 자기 자신 한탄만 하지 말고 내게 묻고 나와 해나가자.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깨끗게 해주리. 진정 나의 약속이다. 내 말이다. 100% 믿고 꼭 실천하길 원한다. 내가 떠나기전 나를 꼭 보자. 만나자. 내 사랑들아. 내 애닦은 심정을 한번은 진정으로 느끼길 원한다. 나는 사랑에 갈급하도다. 너희 모든 것 이끌어낼 사랑을 다오 마지막 내 부탁이다. 사랑한다 섭리여. 사랑한다. 사랑해. 안녕